

김마리아(1892-1944)의 교육관

— 실력양성론 형성과 구체화를 중심으로 —

이 방 원*

- I. 서론
- II. 일제의 침략과 구국 의지 형성
- III. 독립 방법으로서의 여성교육론과 실력양성론 형성
- IV. 실력양성론의 발전 및 역량 강화
- V. 한국 귀국과 교육 활동
- VI. 결론

I. 서론

김마리아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했다’고 당당히 밝히며 일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여성독립운동가’이다. 1966년 출간된 중학교 3학년 2학기 『국어』 VI. 일기와 전기에 김필레가 서술한 ‘김마리아’가 이상재, 마하트마 간디, 앨버트 아인슈타인과 함께 실려 있으며,¹⁾ 1974년 출간된 중학교 3학년 1학기 『국어』 1. 전기, (1) 광낙원과 김마리아라는 제목으로 이은상의 글이 실려 있다.²⁾ ‘김마리아’는 20년 가까이 중학교 『국어』 책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 연구원, 한국사회복지역사문화연구소 소장.

1) 김필레, 「김마리아」, 『중학 국어 III-II』,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66.

2) 이은상, 「광낙원과 김마리아」, 『중학 국어 3-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4; “3·

에 수록되어 당시 젊은이들 대부분은 그 이름과 활동을 알고 있었으나, 김마리아의 내용이 교과서에서 사라지면서 이제 그 이름조차 알고 있는 젊은이는 흔치 않다.

다만 김마리아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면서 그의 업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김마리아에 대한 연구 분야는 독립운동,³⁾ 여성운동가,⁴⁾ 기독교계 지도자,⁵⁾ 교육가,⁶⁾ 신여성⁷⁾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김

1 운동은 살아 있는 민족혼의 부르짖음이요, 영원한 역사의 증언대다.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은 이 3·1로써 절정을 이루어, 광복을 매듭짓기까지 기운찬 산맥으로 뻗어 나왔다. 그 독립운동의 산맥 중에 두드러진 봉우리로, 금강석같이 눈부신 여성 한 분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김마리아다”(이은상, 「곽낙원과 김마리아」, 6쪽).

- 3) 이현희, 「한국근대인물의 재발견: 50평생을 항일독립투쟁한 집념의 투사-김마리아」, 『통일한국』 52, 1988; 노영희, 「항일운동가 김마리아의 민족혼에 대한 자각과 실천과정」, 『인문과학연구』 7, 2001; 박용옥, 『김마리아-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하였다(이하 『김마리아』)』, 흥성사, 2003; 유준기, 「김마리아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보훈논총』 8-1, 2009; 정경환, 「김마리아의 구국투쟁과 독립정신에 관한 연구」, 『민족사상』 7-4, 2013; 양현혜, 「김마리아의 불꽃 같았던 삶을 기념하며」, 『통일의 길, 한국 여성독립운동에서 찾다』, 정언, 2015; 허명섭, 「일제에 항거한 기독교인: 대한의 독립과 결혼했던 김마리아」, 『활천』 786-5, 2019; 황민호, 「김마리아의 국내에서의 독립운동과 대한민국에국부인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9, 2019.
- 4) 노영희, 「김마리아, 민족혼에 대한 자각과 여성해방 운동」, 『한림일본학』 6, 2001; 전병무, 「김마리아, 기독교계 항일여성운동의 대모」, 『내일을 여는 역사』 71·72, 2018.
- 5) 김광자, 「여성이 독립해야 조선이 독립한다-기독교여성지도자 김마리아」, 『이제 여기 그 너머』 6, 2015; 이선이, 「선각자 김마리아에 대한 선교적 전망」, 『선교신학』 44, 2016 ; 김광자, 『일제강점기 기독교여성지도력 유형 비교 연구: 김활란과 김마리아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7.
- 6) 김혜경, 「김마리아의 민족주의 교육사상연구」, 『논문집』 1, 1981; 김호일, 「기독교 교육가 김마리아 연구」, 『인문학연구』 36, 2003; 이선용, 「한국 초기 개신교와 여성교육: 김활란과 김마리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이영분, 「근대 한국 미션스쿨의 여성교육과 한국 여성의 삶과 변화: 초기 이화학당과 정신여학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7) 김영일, 「식민지 시기 신여성의 미국 체험과 문화 수용」, 『한국문화연구』 11, 2006.

마리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항일독립운동에 집중되어 있으며, 2000년 대에 들어와 이루어졌다. 기존 논문들은 김영삼⁸⁾과 박용옥의 저서⁹⁾ 내용 중 해당 주제와 관련 있는 특정 부분을 활용하고 다른 자료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심화 분석되어 왔다.

본 논문은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한 김마리아의 교육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김마리아는 수피아여학교, 정신여학교, 마르다월슨여자신학교 등 세 곳의 여학교에서 총 13년간 교사로 활동하였다.¹⁰⁾ 20대 초반의 수피아여학교와 정신여학교 교사 김마리아에 비해 40대 이후 마르다월슨여자신학교에서의 교사 김마리아는 독립 방법으로서 교육에 대한 신념이 확고해져 있었다. 미국에 망명 중이던 김마리아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직후 귀국 가능성을 타진하고, 총독부와의 협의를 거쳐 1932년 7월 귀국하여, 1933년 봄부터 마르다월슨여자신학교에서 강의하였다. 안전한 미국에서의

8) 김영삼, 『김마리아』, 한국신학연구소, 1983. 김영삼은 이 책의 후기에 “김마리아 선생의 전기를 단편으로 수십 차례, 장편으로 두 번을 저자는 써서 출판하였다. 이번 이 원고는 장편으로 세 번째의 전기가 되는 것이다. …… 이 전기는 정전(正傳)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김영삼은 1965년, 1975년 두 차례에 걸쳐 장편 전기를 서술하였고, 이전의 모든 자료들을 망라하여 1983년 서술한 이 책에는 증인, 고증인 및 자료제공자 명단, 관련 자료, 참고문헌 등을 수록하였다. 이 책은 저자가 직접 국내외의 자료를 모으고, 고증인을 찾아 만나 대담하여 김마리아의 일생을 정확히 서술하고자 노력한 전기이다. 그동안 김마리아 연구자들이 김영삼의 전기 내용을 그들의 논문 및 저서에 주요하게 인용하였다. 필자도 김마리아의 서한과 글·신문기사·판결문 등의 1차 사료와 이후 연구성과 등과 비교 분석하면서 주요 자료로 사용하였다.

9) 박용옥의 『김마리아』는 국외 자료를 발굴하여, 김영삼의 『김마리아』에서 부족하였던 김마리아의 활동, 특히 중국 및 미국에서의 독립운동과 교육활동에 대해 많은 정보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0) <김마리아의 교사로서의 활동>

시기	학교	수업 과목
1910년 9월-1912년 봄	광주 수피아여학교	-
1913년-1915년 4월	서울 정신여학교	수학
1933년 봄-1941년 12월	원산 마르다월슨 여자신학교	성경

삶을 뒤로 하고 일제의 철저한 감시 하에 생활해야 했던 한국으로 돌아와 교사로서 활동한 김마리아의 교육적 신념을 그의 생애 주기와 생애 사건과 연관시켜 고찰하고자 한다.

필자는 김마리아의 삶의 궤적 속에서 그녀의 교육관이 형성, 변화, 발전하는 과정을 추적하여, 김마리아 교육관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한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독립신문』, 『신한민보』, 『The Korean Student Bulletin』 등 일제시기 국내외 신문자료와 잡지를 망라하고, 김마리아와 함께 활동하였던 명사들의 회고문과 기존 연구성과 등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가 김마리아 전 생애에 걸친 구국 및 독립운동¹¹⁾으로서의 교육운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II. 일제의 침략과 구국 의지 형성

1. 소래마을 시절, 조국에 대한 애국심 형성

김마리아가 태어난 황해도 장연군 대구면 송천리(일명 소래마을)는 서울의 명문 광산김씨 가문의 재산가였던 김마리아의 현조부 김창주가 갈수록 부패해 가는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정계에서 물러나와 자리를 잡은 공간이다. 현조부는 직접 황폐한 미개지를 개척하고 그곳의 원주민들을 일깨워 생활태도를 가르쳐 주면서 소래마을의 유지로서 터전을 잡았다. 일명 ‘김관서 집’이라 불렀던 그 집안의 후손들은 대대로 소래마을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교육시키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었다.¹²⁾

11) ‘구국’은 위태로운 나라를 구한다는 개념의 용어로 1910년 이전의 김마리아 활동과 관련되어 서술하고, 1910년 한일병합 이후에는 나라를 되찾기 위한 활동이므로 ‘독립’이라고 구별하여 사용하였다.

12) 김영삼, 『김마리아』, 7-10쪽; 정충량, 「김마리아의 생애와 사상」, 『나라사랑』 30, 1978, 23쪽. 『나라사랑』 30호는 김마리아 특집호로, 김마리아 관련 논문, 자료 집뿐 아니라 김마리아와 함께 활동하고 생활하였던 사람들이 ‘일화’를 수록하고 있다.

소래마을은 한국 개신교 역사에 있어 한국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곳이라는 매우 의미 있는 지역이다. 소래마을에 개신교를 받아들인 사람은 김마리아의 아버지 김윤방 등이었다. 전통적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개방적이었던 김윤방은 집안의 딸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주었다. 김마리아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한동안 사랑방에서 『천자문』, 『동몽선습』, 『사학』 등 한학을 익혔고 6살이 되면서 신식학교인 ‘금세(金世)학당’, 일명 소래학교를 다니기 시작하였다. 김판서 집의 여아들, 즉 김마리아는 네 명의 고모(구례, 노득, 순애, 필례)와 두 명의 언니(함라, 미령)와 같이 새로 설립된 소래학교에 다녔다. 이들은 소래학교에서 국어(한글), 산수, 천자문, 성경도설(구약성서), 역사 등을 배웠다.¹³⁾ 김마리아는 을지문덕, 김유신, 이순신과 같이 외적의 침입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기지를 발휘하며 용맹하게 나라를 지켜낸 역사적 인물들에 대해 배우면서 자신도 나라를 지키는 여장군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던 당찬 소녀였다. 소래학교에서 모범적으로 수업을 받았던 김마리아는 열두 살이 되던 1903년 소래학교를 졸업하였다.¹⁴⁾

13) 김영삼, 『김마리아』, 11-17쪽; 박용옥, 『김마리아』, 53쪽, 85쪽; ‘금세학당’은 1893년 12월 한국에 입국한 캐나다 선교사 맥켄지(William J. McKenzie, 1861-1895)를 기념하기 위해 그의 한국 이름인 금세(金世)를 따서 소래마을 사람들이 지은 이름이다. 맥켄지는 소래마을에 들어와 전심전력으로 선교활동을 하다가 1895년 6월 23일에 영양결핍과 과로로 인한 정신 착란증세를 일으켜 34세의 일기로 사망하였다. 소래학교는 1895년 2월 15일 교인들의 자녀 중 남자아이들 7, 8명을 교육하기 시작하였고, 서경조 형제와 김윤방 형제의 주도로 예배당의 부설로 1896년 건축되었다. 김마리아와 함께 학교를 다녔던 막내 고모 김필례가 ‘이 학교에서 처음으로 교육다운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뒷날 서울에 올라와 연동여학교를 다닐 때에도 이 학교에서 배운 공부가 큰 보탬이 되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소래학교의 교육 내용이 상당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박용옥, 『김마리아』, 86쪽). 김마리아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시기가 5살(『나라사랑』 30, 16쪽), 6살(김영삼, 『김마리아』, 17쪽), 8살(박용옥, 『김마리아』, 85쪽) 등으로 다르다. 본 고에서는 일곱 살에 소래학교를 자매와 조카들과 다녔다는 김마리아의 막내 고모 김필례의 글에 따라 이에 따른다(김필례, 『YWCA인물사 김필례편 - 일본 유학이 Y와의 인연 가져와』, 『한국YWCA』, 1977, 34쪽).

김마리아의 가족들은 소래마을에서 신분으로는 양반 가문이고, 경제적
으로 윤택하며, 학문과 인품으로도 존경받는 사람들로서, 김판서 집 아이
들은 가족에 대한 애정, 자부심, 책임뿐 아니라 소래마을 전체의 안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장하였다. 또한 전통 유학자 집안이면서도 새로
운 문물인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가정환경 속에서 신앙을 키우며,
여자라는 차별 없이 남자 친지들과 함께 한학과 신학문을 고루 익힐 수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김마리아와 그 가족들이 가지는 가족과 마을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은, 제국주의 열강이 한국에 침투하고 특히
일제의 침략이 가시화되고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조국과 민족으로 확대되
었다. 이는 김마리아의 가문에서 숙부인 김운오와 김필순, 고모인 김구례,
김순애, 김필례, 언니인 함라와 미림 등과 그의 배우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독립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증명된다.

2. 정신여학교 시절, 투철한 구국 의지 형성

김마리아의 나이 3세에 아버지 김운방이 사망하였다. 이후 큰 숙부인
김운오¹⁵⁾가 아버지 역할을 해주었다. 숙부인 김운오와 김필순¹⁶⁾이 서울로

14) 박용옥, 『김마리아』, 22쪽; 491쪽.

15) 큰 숙부인 김운오는 백범 김구와도 절친한 사이였으며, 1906년 서울과 평안남
도, 황해도 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애국계몽단체 ‘서우학회’의 발기인으
로 활동하였으며, 1908년 1월에는 이동휘, 안창호, 박은식, 이갑, 유동렬 등과
함께 ‘서북학회’에도 참가하여 총무원의 중책을 맡기도 하였다. 김운오는 1902
년 도산 안창호가 유학을 떠나려 할 때 약혼녀 김혜련과의 결혼을 적극 주선하
는 등 전체적으로 애국지사들과 널리 교류하였다. 윤병석·윤경로 편, 『안창호
일대기』, 역민사, 1985, 38쪽; 유준기, 「김마리아의 생애와 독립운동」, 170쪽.

16) 김필순은 세브란스병원 의학교를 1908년 졸업하였다, 안창호와는 의형제를 맺
을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고, 1907년 안창호가 미국에서 돌아와 국내에서 김형
제상회를 중심으로 구국활동을 전개하고자 했을 때 안창호, 노백린, 이갑, 이동
휘, 유동렬 등이 한 형제처럼 가까이 지냈다. 유준기, 「김마리아의 생애와 독립
운동」, 171쪽; 김주용, 「의사 김필순의 생애와 독립운동」, 『연세의사학』 21-1,
2018, 10-11쪽.

올라가 ‘김형제상회’를 경영하면서 자리를 잡자, 큰 조카 함리를 서울로 올라오게 하여 동생인 순애와 필레가 다니고 있는 정신여학교¹⁷⁾에 입학시켰다.¹⁸⁾ 미림과 마리아도 1905년 음력 12월 어머니까지 사망하자 1906년 음력 3월 분묘를 만든 후 서울로 올라와 큰 숙부인 김윤오 집으로 이주하고, 정신여학교에 입학하였다.¹⁹⁾

정신여학교의 설립자인 애니 엘러스(Annie J. Ellers, 1860-1938)는 성경과 기독교인의 생활을 가르치는 것 외에는 외국식 교육을 지양하고 오히려 한국식 가정에 맞는 교육을 추구했으므로,²⁰⁾ 한국인 선생님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러한 설립 의지는 엘러스 교장이 퇴임한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따라서 정신여학교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한국인 교사의 자유로운 수업 내용이었다. 신마리아(1873-1921)는 정신여학교 초기 교사이자 교감으로 학생들의 생활 일체를 도맡았다. 그녀는 지식의 전수와 더불어 애국심과 신앙심 교육을 함께 했다.²¹⁾ 또한 한문, 국사, 서도는 이창직, 김원근과 같은 학자가 맡았다. 특히 김마리아가 정신여학교에 입학한 1906년에는 37세의 장년 김원근이 한문과 역사 선생님이므로 부임하였고, 성현들의 행적을 통해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자세와 동양의 미덕을 가르쳤다. 그는 역사와 한문 과목을 통해서 전인교육을 시켰을 뿐 아니라 민족의 얼을 고취시켜 애국정신을 북돋아 주었다.²²⁾

17) 연동여학교는 1909년 교명을 정신여학교로 변경하였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 교명을 정신여학교로 통일한다.

18) 김영삼, 『김마리아』, 30쪽.

19) 같은 책, 36쪽.

20) Gilmore, G. W, *Korea from its Capital*, Philadelpha: The 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 1892.

21) 고춘섭, 『하늘과 땅 사이에서-순원 신의경 권사 전기』, 금영문화사, 2001, 56-58쪽; 고춘섭, 『연동교회 애국지사 16인 열전』,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2009, 362쪽.

22) 정신백년사출판위원회, 『정신100년사』(상), 정신여자중고등학교, 1989, 193쪽; 434-442쪽; 정신여학교의 교육 의지를 알게 된 많은 애국지사들은 자신의 딸과 누이들을 정신여학교에 입학시켰다. 정신여학교 초창기 졸업생들의 면모를 살펴해보면 자매간에 입학하여 공부한 경우가 많았다. 김마리아의 고모들과 언니들

애국심과 민족의 얼을 고취시키는 한국인 선생님들의 교육과 애국지사 가정 안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함께 하는 환경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는 중 김마리아는 구국의 의지를 굳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 첫 번째 경험은 ‘김형제상회’에서 애국지사들의 활동을 목격한 것이다. 김마리아의 숙부 김윤오와 김필순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김형제상회’의 위층을 애국계몽운동, 신민회 운동의 본거지로 내놓았다. 김형제상회에 하루가 멀다 하고 최광옥, 유동열, 이갑, 이동휘, 노백린, 안창호, 김규식, 서병호 등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들은 모이기만 하면 일본의 야망을 규탄하며 한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열렬한 토론을 벌이곤 하였다.²³⁾ 1907년 4월 항일 비밀결사인 신민회가 서울에서 안창호의 발기로 조직되었다. ‘김형제상회’는 실질적으로 신민회 추진회 본부나 마찬가지로 되었다. 이러한 집안 환경 안에서 김마리아는 애국투사들과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이들의 생각과 활동에 감화되어, 이들의 구국 운동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다. 열다섯 살 마리아는 시간을 맞추어 간단한 차와 과일, 경우에 따라서는 음식을 장만하여 투사들에게 제공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실천하였다. 김마리아는 이들과 한자리에 앉아 일본의 제국주의 술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애국혼을 키워갔다.²⁴⁾

두 번째 경험은 1907년 군대해산 시 세브란스병원에서 부상병을 치료한 것이다. 1907년 8월 1일 일제는 한국 군인들을 무장 해제시켰다. 당시 김마리아는 고모인 순애와 필레, 언니인 함라와 미령과 함께 지금의 서울역 맞은 편, 세브란스병원 초입의 김필순 숙부 집에 거하면서 정신여학교

뿐만 아니라 1회 졸업생인 서안라와 서신성, 이창직의 딸인 1회 졸업생 이해경과 5회 졸업생 이자경, 이은경, 노백린의 딸인 노숙경과 노순경, 이동휘의 딸인 이의순과 이인순 등이 모두 자매간이었다.

23) 김영삼, 『김마리아』, 37쪽.

24) 김영삼, 같은 책, 38-39쪽; 1907년 4월 항일 비밀결사인 신민회가 서울에서 안창호의 발기로 양기탁, 전덕기, 이동휘, 이동녕, 이갑, 유동열, 안창호 등 7명이 발기위원이 되고 노백린, 이승훈, 안태국, 최광옥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다. 장석홍, 『한국 독립운동의 혁명 영수, 안창호』, 역사공간, 2016, 56-57쪽.

를 다니고 있었다. 군대해산으로 야기된 한국 군인과 일본 군인의 전투로 군인들뿐 아니라 일반인 사상자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시내 도처에 쓰러져 있었고, 부상자들은 세브란스병원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았다. 수술실에서는 에비슨이 한국 의사, 몇몇 의학생, 네다섯 명의 훈련된 한국인 간호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신속하게 수술을 집도했다. 이때 정신여학교 학생들도 간호에 합류하였다. 간호원들과 여학생들은 “저 동포는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도 하는데, 우리는 여자이기는 하나 의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고 결단한 후 열심히 간호하였다.²⁵⁾

이때 정신여학교 학생은 세브란스의학교 의학생이었던 김필순의 동생과 조카들이었다. 부상병들이 세브란스병원으로 몰려와 간호할 사람이 부족하자, 김필순은 동생인 필레, 순애, 조카인 합라, 미림, 마리아에게 부상병들을 간호하라고 하였다. 그들은 병원에서 간호하는 중에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목메어 ‘대한제국 만세’를 부르는 한국 군인들을 볼 수 있었다. 김판서 집 다섯 여학생들은 죽어가는 군인들의 시트 위에서 죽은 자의 동료들과 같이 엎드려 울음을 터뜨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²⁶⁾ 이들 다섯 명의 여학생은 총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끝까지 일본 군인과 싸우다 부상 당한 한국 군인을 간호하며, ‘조국’이 가지는 의미를 깊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때의 체험은 김판서 집 다섯 여학생에게 일생을 통해 나라 사랑하는 마음, 일본에 대한 분함과 증오, 그리고 조국의 독립에 헌신하겠다는 강력한 투쟁 의지를 갖게 하였다.²⁷⁾

정신여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 김원근 선생은 학교에 다니며 가장 감명 깊었던 일을 써보라는 과제를 냈다. 김마리아는 ‘의병을 치료하고’라는

25) 신문기사에는 연동여학교로 기재되어 있으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정신여학교로 서술하였다, 『女徒義學』, 『대한매일신보』, 1907. 8. 4.

26) 김필레, 「이상을 향하여 다름질쳤던 격동(激動)의 시대」, 『회상의 학창시절(女流21人集)』, 신서출판사, 1973, 187쪽; 이기서, 『교육의 길, 신앙의 길』, 복산책, 2012, 60-63쪽.

27) 김필레, 「YWCA인물사 김필레편 - 일본 유학이 Y와의 인연 가져와」, 35쪽.

제목으로 세브란스병원에서 부상병을 치료하였던 그 날의 울분과 당시 일제의 탄압 상을 신랄하게 써냈다. 김원근 선생은 김마리아의 날카로운 비판력과 막힘없이 써 내려간 문장력에 감탄하면서, 마리아의 구국의지를 칭찬하였다. 선생의 칭찬을 듣던 마리아는 오히려 이상하다는 듯 “선생님! 내 나라 내 주권을 찾아보겠다는 마음이 당연하지 않아요?”라고 말하였다. 이후 작문 시간에는 조국의 국권이 빼앗겨 가는 현실에 대한 울분과 일제의 술책을 비판하는 학생들의 글이 부쩍 늘었다.²⁸⁾ 학교 당국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국 충정의 기운이 밖에 알려지지 않도록 무척 신경을 썼고, 김마리아가 외출할 때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고 특별히 주의를 주었다.²⁹⁾

김마리아는 1910년 정신여학교를 졸업하고 한일병합 직후 광주 수피아 여학교의 교사로 취직하였고, 약 2년간의 교사생활을 하였다. 1912년 가을 김마리아는 일본 금성(金星)학원에 입학하여 영어를 익힌 다음, 광도(廣島)고등여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나 1년도 채 못 된 1913년 가을 학비를 보내오던 삼촌 김윤오의 파산으로 귀국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에 돌아온 마리아는 정신여학교 교사가 되었다. 정신여학교 교사 시절에도 김마리아는 아침 기도회 모임을 인도하게 되면, 애국 여성을 주제로 한 구약성서 ‘에스더기’의 구절을 낭독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였다. 학생들은 김마리아의 영향으로 교정에 있는 회나무 뒤 잔디밭에 모여 구국기도를 하곤 하였다.³⁰⁾ 또한 김마리아는 틈만 나면 조국의 비참한 현실 타개와 민족 장래의 희망을 위해 기도실에 가서 눈물로 기도를 하였고, 동료 유각경 등에게 조국의 독립을 이야기했다.³¹⁾ 이렇듯 김마리아의 독립 의지는 졸업 후 교사로 활동하면서 더욱 확고해졌으며, 자신의 생각을 학생과 동료들에게 설파하며 그들이 영향을 받고 실천하는 것을 경험했다.

28) 김옥선, 『빛과 소금의 삶, 김마리아 생애』, 주간시민, 1978, 64-66쪽.

29) 김영삼, 『김마리아』, 50쪽.

30) 김영순, 「나의 동지, 김마리아선생」, 『나라사랑』 30, 1978, 102-103쪽.

31) 김영삼, 『김마리아』, 58쪽.

Ⅲ. 독립 방법으로서의 여성교육론과 실력양성론 형성

1. 동경 여자학원 시절, 여성교육과 실천의 필요성 인식

김마리아는 루이스(Margo Lee Lewis, 1885-?) 교장의 알선으로 1915년 동경의 여자학원으로 유학 가게 되었다. 송별회 자리에서 김마리아를 격려하는 다음과 같은 루이스 교장의 말에서 김마리아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알 수 있다.

부디 공부 열심히 하여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되어 돌아오길 바라오. 지금 미스 김의 나라는 유능한 여성 지도자의 힘을 절대 필요로 하고 있소. 부지런히 배워 가지고 돌아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여성들의 힘을 모으고 국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닦기 바라오.³²⁾

마리아는 1915년 5월 동경의 여자학원 본과(당시 고등여학교)에 들어가 1916년 3월에 졸업하고, 이어 고등과(당시 전문학교)에서 수학하였다. 1917년 김마리아는 고모 김필레가 조직하고 제1대 회장을 역임하였던 ‘동경여자유학생친목회’의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³³⁾ 동경여자유학생친목회의 조직 목적은 ‘재동경 조선 여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아울러 지식계발 및 국내 여성을 지도 계몽’하는 데에 있었다. 김마리아가 회장이 된 이후 재일본 여성 유학생의 대표단체로서의 성격을 갖기 시작했다.³⁴⁾ 김마리아는 동경여자유학생친목회를 맡고 난 다음 그 첫 사업으로 잡지 『여자계』를 발간하였다. 『여자계』는 일제강점기 한국 여성이 만든 최초의 잡지로, 여성들의 의식을 깨우쳐 불합리한 사회적 지위를 변화시키고 선

32) 김영삼, 『김마리아』, 64쪽.

33) 「우리 소식」, 『학지광』 5, 1915, 64쪽.

34) 박환, 「나혜석의 민족의식 형성과 민족운동」, 『여성-역사와 현재』, 국학자료원, 2001, 175-177쪽, 이송희, 『근대사 속의 한국여성』, 국학자료원, 2014, 273-274쪽.

도적 여성으로서 그 역할을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김마리아는 1918년 9월 『여자계』 제3호에 「여성교육론」을 기고하였다. 그 중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현대 문명의 특징은 ‘해방’이라 합니다. 정권 해방, 직업 해방, 노예 해방, 학문 해방, 여자 해방 등등, 이것들이 오늘날 문명의 정신이라 하겠습니다. …… 사람은 태어난 채로는 사람이 아니요, 그 신체와 정신의 모든 능력을 조화적으로 발달시켜야 비로소 사람이 될 것이외다. 말하자면 교육은 완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외다. …… 먼저 사람을 만들고 다음에 여자를 만듦이외다. 조선 여자는 조선 사회에 적합하고 유용하도록 하며, 조선 사회에 헌신할 만하게 가르침이외다. ……³⁵⁾

김마리아는 자신이 살고 있던 당시를 ‘해방’의 시대로 파악하였으며, 일제로부터의 독립과 함께 여성의 해방 역시 중요하게 보았다. 교육을 통해 신체와 정신이 조화롭게 발달되어야만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이라 하면서, 여성도 교육을 통해 남성과 조화를 이루어 조선 사회에 적합하고 유용하며, 조선 사회에 헌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시기 이미 김마리아는 조국 독립을 위해 여성 스스로 교육을 통해 기존의 굴레에서 ‘해방’되고 나아가 조국의 ‘해방’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자각하고 있었다.

김마리아는 동경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여학생뿐 아니라 남학생들의 모임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유학생들의 모임인 학우회는 1918년 12월 29일 망년회, 12월 30일 송년웅변대회, 1919년 1월 6일 신년웅변대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연사들은 ‘민족자결’이라는 세계 사조에 비추어 지금이야말로 한민족이 자주독립할 시기임을 주장하면서 유학생들이 선봉에 나서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였다.

이 자리에 김마리아는 황에스더와 함께 참석하였다. 그러나 주최자나 연사들인 남성들은 거족적 운동을 여학생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35) 김마리아, 「여성교육론」, 『여자계』 3, 1918; 김영삼, 『김마리아』, 248쪽.

않았다. 이때 황에스터가 “국가의 대사를 남자들만이 하겠다는 것입니까? 수레바퀴는 한쪽만으로는 달리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여성의 동참을 강력히 주장하였다.³⁶⁾ 이 열띤 주장에 담긴 여학생들의 자주독립 정신에 남학생들은 감동하였고, 이후 여학생들과도 함께 논의하면서 2·8 독립선언 운동을 준비하였다. 김마리아도 동경여자유학생친목회 회장으로서 참여하였다. 그러나 2·8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조선청년독립단 대표 11명 중 여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김마리아는 왜 여자는 남자와 동등하게 독립 거사에 참여할 수 없는지를 고민하였고, 그 이유는 여자들이 역사의 주체로서 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과, 2·8 독립선언 운동과 그 이후 항일 독립운동에서 부녀자들의 참여 확대가 절실하다는 것을 깨달았다.³⁷⁾

김마리아는 동경 유학 시절 동안 여성 역시 봉건적 구습에서 벗어나 여성해방을 이루고, 남성과 함께 국가의 자유와 주권을 찾는 데 적극 참여해야 조국의 독립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마리아는 이제 적극적으로 한국의 여성들을 일깨워 독립운동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여성해방과 조국해방을 위해 스스로 2·8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귀국하였다.

2. 상해 망명 시절, 실력양성론 착안

김마리아는 1919년 2월 귀국 후 독립운동을 일으키고자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3·1운동 직후 일제에 체포되었고, 면소 석방 이후 ‘대한민국애국부인회’를 새롭게 조직하고 활동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 발각되어 다시 체포되었다. 여성이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조국 ‘해방’ 나아가 여성 ‘해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 김마리아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여성독립단체인 ‘대한민국애국부인회’를 전국 단위로 결성하고 결사부, 적

36) 박화성, 『송산 황신덕 선생과 사상과 생활: 새벽에 외치다』, 휘문출판사, 1966, 77-78쪽.

37) 박용욱, 『김마리아』, 146-147쪽.

십자부를 조직하는 등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쳤다. 김마리아와 그와 함께 전국에서 단결하여 노력한 여성들의 활동은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국외에도 알려졌다.

대한의 여자는 독립운동의 모든 부분에 빠짐이 없었다. …… 자기에의 실력과 지위를 자각하게 되어 “우리는 남자의 부속물이 아니요 독립한 인격이다”함을 사실로 증명하게 되었다.³⁸⁾

두 차례의 체포와 참혹한 고문 속에서 심신이 피폐해진 상황에서 김마리아는 자신의 행보를 수정하여 망명을 결정하였다. 김마리아의 망명은 병세가 호전될 경우 보석이 취소되어 다시 복역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항일독립운동의 핵심 여성 지도자를 지키고자 한 임시정부의 의지, 송실대 학장이었던 조지 매쿰(George Shannon McCune, 1872-1941)의 권유와 재정 지원, 임정요원 윤응념의 실행으로 성사되었다. 김마리아가 중국 망명을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 선교사 매쿰이 있었다. 매쿰은 김마리아의 병실을 찾아 중국 망명을 간곡히 권고하였으며, 수감되어 있는 동지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이를 완강히 거절하던 김마리아를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다.³⁹⁾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1921년 7월 중국에 도착한 김마리아

38) 「부인과 독립운동」, 『독립신문』, 1920. 2. 17.

39) 김영삼, 『김마리아』, 176-178쪽; 매쿰이 마리아에게 망명을 권유 설득시켰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회고 하였다. “저는 김마리아만은 일제의 손에 죽게 해서 안 된다고 믿고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김마리아를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야 조선의 독립운동은 죽지 않고 어느 시기에 가서라도 꼭 조선독립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김마리아를 중국으로 건너보냈습니다. 김마리아는 조선의 딸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진진한 딸입니다. 신앙으로도 진실한 사람이고 애국애족하는 마음으로도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동정녀로서 몸과 마음을 나라에 바친 숭고한 처녀 애국자였습니다. 김마리아를 살린다는 것은 조선의 애국정신을 살린다는 신념으로 김마리아를 중국으로 피신시키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여 성공시켰습니다.” 김영삼, 『김마리아』, 237쪽.

는 병석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했고, 3-4개월 후에야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김마리아는 1922년 2월 18일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김구와 함께 황해도 대의원으로 선출되었고 애국부인회 간부가 되었다. 그러나 김마리아는 황해도 대의원으로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음에도 정치 참여에는 소극적이었고, 부인운동과 남경 금릉대학에서의 학업에 열중하였다.⁴⁰⁾

김마리아가 정치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국내의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와 고문을 감내하며 상해 임시정부를 위해 자금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마리아가 경험한 실상은 실망스러웠기 때문이었다. 당시 상해 임시정부는 외부로부터 임시정부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의 도전에 직면해 있었으며 내부는 분열되어 있었다. 이를 수습해보고자 마련된 1923년 1월 31일 국민대표회의는 5개월간 계속되었다. 김마리아는 회의 제 36일째인 3월 8일 시국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수만의 유혈로 성립되었고 다수의 국민이 믿고 따르는 정부이므로 잘못된 것은 개조해서라도 이 정부를 중심으로 통일된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개조파와 창조파 간의 논쟁은 난상토론 끝에 결렬되었고 사실상 임시정부는 해산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다.⁴¹⁾

이러한 실상을 독립운동의 중심지인 상해에서 직접 겪은 김마리아는 “우리 동포를 구함은 정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도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⁴²⁾ 김마리아는 임시정부의 실상에 대해 실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사건을 민족독립의 희망의 단계로 평가하였고,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합하기를 공부’할 것과 ‘인재 육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⁴³⁾ 이상의 경험으로 국권회복의 근본 기틀은 교

40) 「고난도 다종다양」, 『동아일보』, 1925. 8. 17; 박용욱, 『김마리아』, 293쪽.

41) 「회의 제36일」, 『독립신문』, 1923. 4. 4; 박용욱, 『김마리아』, 294-296쪽.

42) 송상도, 『기려수필』, 국사편찬위원회, 1971, 272쪽.

43) 「단합하기 공부하자」, 『신한민보』, 1923. 8. 16; 이선용, 「한국 초기 개신교와

육을 통해 민력(民力)을 키우는 데 있다는 ‘실력양성론’이 김마리아의 독립운동의 주된 이념이자 방략이 되었다. 김마리아는 자신의 신념을 강건하게 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유학에 뜻을 두고, 국민대표회의 결렬 직후인 1923년 6월 23일 미국으로 떠났다.⁴⁴⁾

IV. 실력양성론의 발전 및 역량 강화

1923년 32세가 된 김마리아는 7월 1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여,⁴⁵⁾ 1932년 7월 한국으로 돌아오기까지 9년 동안 미국 망명객으로 살아야 했다. 이 시기 김마리아는 독립운동의 강조점을 ‘실력양성’과 ‘민족단결’에 두고, 스스로도 망명 기간 내내 독립운동과 더불어 지속적인 학업을 통해 실력양성을 병행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활동할 수 있는 날을 기약하며 실행한 조국의 인재양성과 독립을 위한 준비였다. 김마리아의 만 9년간 미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실력양성론이 구체화되어 국민 개개인이 실력을 갖춘 ‘지도자’로서 실천해야 하는 행동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고, 교육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1. 미국 망명시절, 실력양성론의 구체화

김마리아는 미국에 도착한 후 재미동포들의 환영을 받으며, 그들과 독립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누었다. 그 당시 연설의 내용을 통해 김마리아의 독립에 대한 방침을 확인할 수 있다. 김마리아는 1923년 7월 22일 샌프란시스코 대한여자애국단 환영회 연설에서 독립운동의 절대 요건은 ‘인재와 경제력’ 그리고 ‘민족단결’임을 강조하였다.⁴⁶⁾ 7월 25일 사그라멘

여성교육», 47쪽.

44) 「고난도 다종다양」, 『동아일보』, 1925. 8. 17.

45) 「고난도 다종다양」, 『동아일보』, 1925. 8. 17.

토 연설에서도 다음과 같이 교육과 경제력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실력을 준비하여 이 앞에 오는 독립을 기대하는 것이외다.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말씀은 일하시는 분은 부지런히 일하여 금전을 많이 저축하시고, 자녀가 있는 분은 공부를 시켜주시고, 공부하는 학생은 부지런히 공부하여 우리의 장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⁴⁷⁾

8월 5일 파뉴바 부인애국단 제5주년 기념식에서도 김마리아는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독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신념을 다시 강조하였다. 김마리아는 3·1운동의 효과에 대해서도 “우리 내지에 있는 남녀는 손을 들어 만세를 외치고 피를 흘리며, 외지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땀을 흘려 돈을 바치셨으나 오늘까지 독립을 회복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정성이 부족함이 아니고 단지 국토가 협소하고 실력이 박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라고 하면서, 이 깨달음이 원인이 되어 한국에서는 교육열과 실업열이 팽창되고 있다고 전달하였다. 또한 국민대표회의의 분열에 대해 “얼른 생각하면 민족 전도를 비판”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깨닫고 결심한 것은 “단합하기를 공부하는 것”이라고 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김마리아는 독립을 위해 우리 민족은 실력을 양성하고, ‘사사협의를’ 버리고 단결해야 함을 열변하였다.⁴⁸⁾

김마리아는 미국에 가자마자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국내와 상해의 독립운동 상황과 각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김마리아는 국내 3·1운동의 실패도, 상해에

46) 「자기의 책임한 것을 무엇을 감사하다하라」, 『신한민보』, 1923. 7. 26.

47) 「사그라멘토 50여명 남녀 동포의 환영회」, 『신한민보』, 1923. 8. 2.

48) 「파뉴바 부인애국단 제5주년 기념식과 동 단에서 교회와 합하여 김 여사 환영」, 『신한민보』, 1923. 8. 16; 「단합하기 공부하자」, 『신한민보』, 1923. 8. 16; 박용옥, 『김마리아』, 297쪽.

서의 국민대표회의의 분열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고 각각의 효과와 그로 인해 깨달은 것을 설파하였다. 궁극적으로 이전의 실패와 분열 경험을 통해 깨달은 독립을 위한 방책은 실력양성·경제력·단결임을 가는 곳마다 강조하였고, 다가올 독립된 조국의 미래를 위해 더욱 분발해야 된다는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하였다.

김마리아는 1924년 10월부터 파크대학 입학으로 미국에서의 학업을 시작하였다. 김마리아는 파크대학에 다니고 있었던 1924년 12월 고국의 형님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의 내용에서도 조국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에 대한 이유를 고민하고 자신의 생각을 토로하였다.

국내 국외를 물론하고 우리 민족은 좋지 못한 지위에 있으며 당하는 고생은 경우와 형편으로 따라 거의 일반이니 이것이 무슨 이유일까요. 제가 보는 대로는 없는 이유라고 합니다. 종교가, 정치가, 철학자, 미술가, 교육가, 병학자, 문학가가 모두 없으며 금전이 없다고 봅니다. 자기의 천직을 다하는 남자가 없습니다. 입과 붓으로 일은 하되 몸소 실천하는 이가 없는 듯합니다. 남들의 살림살이를 보니 이상이 실현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면 여자는 남녀동등 여자해방을 말함보다 실제로 남자와 같은 학식을 가졌으며 같은 일을 합니다.⁴⁹⁾

김마리아는 우리 민족이 국내외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고생하는 이유를 제대로 된 실력을 가지고 진심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없음과 남성과 같은 학식과 직업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이 없음이라고 인지하였다. 김마리아는 동경 유학 시절부터 여성이 국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국가의 독립과 발전에 동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함을 이미 자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미국 여성들의 활동을 직접 확인하고, 여성의 교육 수준과 사회에서의 역할도 남성과 동일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발전되었다.

49) 「김마리아, 사랑하는 고국 형님: 미국 파아크 대학에서」, 『동아일보』, 1925. 3. 2.

김마리아는 파크대학을 졸업하고 시카고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1927년 말 콜롬비아대학교 사범대학원의 입학이 허가되어 뉴욕으로 갔다. 당시 뉴욕에서는 한인 사회 유지들이 여성을 배제하고 남성 중심의 『3·1 신보』 발간을 추진하는 등 독립운동에서 여성들을 소외시키고 있었다.⁵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김마리아는 여성이 국가와 사회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길을 열기 위하여 1928년 1월 1일 ‘근화회’를 조직했다. 당시 미국에서 발행된 『신한민보』는 “뉴욕 지방에 있는 한인 부인들이 국가와 동족을 위하는 끊는 정성”으로 근화회라는 단체를 조직하였다고 전하면서 근화회를 소개하였다. 근화회 회장인 김마리아는 근화회 설립 취지를 알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⁵¹⁾

4천 년 혹은 반만년의 교육을 받으신 여러분들이 겨우 대문 밖에도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지가 30년이 될까 말까 하는 지식 덕으로 어린 누이들이 하는 것을 보실 때에 웃으실 만한 것도 많을 것은 우리도 아는 바입니다. 경험이 없고 배운 바가 적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던지 또는 원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조직적으로 일을 할 줄은 모르되, 나라를 사랑하는 붉은 정성,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보겠다는 간절한 뜻만은 여러분에게 양보할 마음이 없습니다.

김마리아는 뉴욕에 입성하자마자 남성 위주로 활동하고 있던 뉴욕의 한인 사회에 나라 사랑의 마음만은 남성들에게 양보할 마음이 없음을 당당히 밝히며, 근화회의 설립 목적을 “(1) 민족적 정신을 고취하며 대동단결을 도모하고, (2) 교육과 실업을 장려하며, (3) 본국 사정을 널리 외국 사람에게 소개하여, (4) 건국 대업에 원조함”이라고 세우고, 그 목적을 달성

50) 『3.1신보 발간계획, 뉴욕에 동지회 조직』, 『신한민보』, 1928. 2. 2; 유준기, 「김마리아의 생애와 독립운동」, 185쪽.

51) 「이역풍토에 무궁화의 가지가지 봄 비친 듯, 뉴욕부인들이 근화회를 조직하여」, 『신한민보』, 1928. 4. 5.

하기 위해 실업부, 교육부, 사교부를 조직하였다. 특히 교육부의 사업은 “토론강연회를 소집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여자교육 발전에 주의함”이라고 명시하였다.⁵²⁾ 근화회의 설립과 실천의 중심에는 김마리아가 상해를 떠나면서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단결, (여성)교육, 경제력이 있었다. 이로써 김마리아의 독립방안을 재확인할 수 있다.

김마리아가 뉴욕 신학교 재학 당시 1931년 2월 한국학생연맹이 주최한 “오늘의 한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What Korea of Today Needs Most)”란 심포지엄에서 “주도적이면서도 협력적인 리더십(Initiative But Cooperative Leadership)”이라는 주제로 밝힌 견해는 다음과 같다.

……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될 때까지 우리 자신의 다리로 서야 하고 우리 자신의 투지로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정한 지도력과 사상의 독립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러한 이상적인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모든 개개의 한국인은 그러한 지도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지도자가 될 것으로 기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각 개개인은 지도자를 만들고 돕는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지도자가 되고 우리는 그 지도자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협력입니다.⁵³⁾

1931년 40세의 김마리아는 모든 국민 한명 한명이 실력을 양성하여 우리의 능력으로 국가를 독립시키고 그 국가를 우리 자신의 힘으로 온전히 발전시킬 수 있는 국민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김마리아의 교육 목표는 김마리아가 여러 경험을 통해 성장하면서 교육의 목표가 점점 확고해지고, 그 목표는 한국인이 교육을 통해 개개인이 지도력을

52) 『이역풍도에 무궁화의 가지가지 봄 비친 듯, 뉴욕부인들이 근화회를 조직하여』, 『신한민보』, 1928. 4. 5.

53) Maria C. Kim., “Initiative But Cooperative Leadership,” *The Korean Student Bulletin*, 1931, p.3; 박용옥, 『김마리아』, 341쪽.

가지고, 국가의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가 성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국민 한명 한명이 사회의 중추로서 그 역할을 하는 단계로 발전되고 있었다.

2. 귀국 후 교육계 투신을 위한 역량 강화

김마리아는 미국 망명 후 한국으로 돌아와 교육계에 헌신하기 위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나갔다. 김마리아가 미국 망명 기간 동안 받은 학업 과정을 다음과 같다.

<표 1> 김마리아 미국에서의 학업 과정

대학	시기	전공	학위
파크대학교	1924년 10월-1927년 5월		문학사
미주리대학교	1926년 여름	계절학기	-
시카고대학교 대학원	1927년 1월-1927년 12월	사회학, 교육학 (연구학생)	-
콜롬비아대학교 사범대학교	1928년 9월-1929년 6월	교육행정학	석사
뉴욕 신학교	1929년 9월-1931년 6월	종교교육학과	신학사

김마리아가 미국에서 공부하였던 첫 대학은 파크대학이었다. 김마리아는 파크대학 학장 호울리(F. W. Hawley) 앞으로 파크대학에 입학하려는 동기, 입학하여 수학하고 싶다는 자신의 열망, 졸업 후 진로 계획 등을 밝힌 친필 편지를 입학원서와 함께 1924년 8월 10일자로 보냈다. 파크대학 입학 목적을 “기독교 지도력을 기르는 파크대학에서 자신을 훈련하고 자질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독교적 인격 형성과 지도력은 세계 도처에서 요구되고 있고, 특히 제 조국에서는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⁵⁴⁾ 이는 파크대학에서 기독교 지도력을 길러 한국으로 돌아

54) 박용욱, 『김마리아』, 321-323쪽.

가 조국의 젊은이를 양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당시 사우스다코타주 휴론대학 학장이었던 매쿤이 마리아의 신원을 보증하는 추천서를 비롯하여 물심양면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 파크대학은 1924년 10월 8일부로 마리아를 특별학생으로 3학년에 입학시켰다.⁵⁵⁾ 김마리아가 파크대학에 입학한 것은 매쿤과의 인연과 그의 도움이 컸으나, 파크대학을 선택한 것에는 김마리아의 의지도 작용하였다. 김마리아는 자신이 매일 3시간의 일을 하며 숙식을 제공받는 반공제(半工制) 학교인 파크대학을 선택한 이유를 고국의 ‘순’이라고 하는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나는 돈이 없는 것도 이유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학교가 절대로 필요함을 알고 실제 체험하고자 들어왔다. …… 일하지 않고 공부하도록 주선하면 되기는 하겠지만 내 손으로 벌어서 내가 공부하는 것을 나는 더 귀히 생각하는 까닭이다.⁵⁶⁾

즉 자신이 도움을 청하면 학비를 보태어줄 사람을 찾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스스로 학비를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더 중요한 이유는 반공제 학교가 조국 한국에서 절대로 필요한 교육기관의 형태라고 판단하고 이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이후 한국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것이다. 즉 파크대학 입학 당시 자기소개서와 ‘순’이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통해, 김마리아가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공부 목적은 귀국 후 한국 교육계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굳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마리아는 또한 파크대학을 다니기 시작한 지 1년도 안 되는 시기에 이미 졸업 후 후과(後科) 1년 더하여 상당한 학위를 얻고 자신의 능력을 더욱 함양한 후 기회를 기다려 고국 한국으로 돌아가 교육계에 종신할 결

55) 박용욱, 『김마리아』, 324-327쪽.

56) 「외국에 있는 신여성(6) 지식을 구하여 미국에서 문학 공부를 하는 중 김마리아양」, 『조선일보』, 1925. 5. 22.

심을 가지고 있었다.⁵⁷⁾ 이러한 노력으로 1927년 5월 파크대학 졸업식에서 문학사 졸업장과 함께 평생교사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다.⁵⁸⁾

김마리아는 파크대학의 교육과정을 1926년 12월까지 모두 마치고, 1927년 1년간 시카고대학에서 정규학생이 아닌 대학원 과정에 준하는 연구학생으로 사회학과 교육학을 1년간 수학하였다.⁵⁹⁾ 김마리아는 콜롬비아 대학교 사범대학원의 입학 허가를 받아놓았기 때문에 1927년 말경에 뉴욕으로 갔다. 1928년 9월 콜롬비아대학교 사범대학원에 입학하였고, 1929년 6월 교육행정학을 주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29년 9월 뉴욕신학교 종교교육학과에 입학하였으며 1931년 6월 신학사 학위를 받았다.⁶⁰⁾ 김마리아가 미국에서 수강한 교과목을 다음의 표로 정리하였다.

<표 2> 김마리아의 파크대학과 콜롬비아대학교 사범대학원에서의
수강 교과목⁶¹⁾

대학	시기	수강 교과목
파크대학	1924-1925 (2개 학기)	성경, 영어, 생물, 화학, 가정, 수학, 체육, 철학, 일어, 중국어(이상 이수학점 인정) 교육학, 종교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1925-1926 (2개 학기)	영어, 교육학, 종교교육학, 경제학, 철학, 심리학
	1926년 여름계절학기	일반 사회학, 고등학교 경제교육, 고등학교 정 신교육 * 사회범죄학 : 수강하였으나 성적취득은 하지 못함 * 미주리 대학에서 계절학기 수강

57) 「고난도 다종다양」, 『동아일보』, 1925. 8. 17.

58) 박용옥, 『김마리아』, 330-331쪽.

59) 「김마리아 여사는 사회학을 더 연구」, 『신한민보』, 1927. 1. 13.

60) 「김마리아 양 뉴욕 주립대학에」, 『신한민보』, 1929. 9. 19; 「각처 대중학의 졸업생」, 『신한민보』, 1931. 6. 11; 박용옥, 『김마리아』, 328-336쪽.

61) 같은 책, 328-337쪽.

	1926-1927 (2개 학기)	사서교육, 대중연설, 회계교육, 철학, 일어
컬럼비아 대학교 사범대학원	1928년 가을 학기	미국교육, 고등학교장론, 소도시학교론, 유럽교육, 사회심리학
	1929년 봄 학기	미국교육, 교육철학, 공립학교정신위생, 농촌교육, 위생학, 교수법, 이중언어교육문제

마리아는 고국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있는 교육자가 되기 위해 교육과 관계되는 과목들을 꾸준히 이수하였다. 특히 기독교에 기반한 교육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파크대학 첫 학기부터 ‘종교교육학’을 수강하였고, 뉴욕 신학교에서도 ‘종교교육학’으로 학위를 받았다. 또한 교육학 관련 기본 수업 이외에도 대학원에서는 미국교육, 유럽교육 등 선진국의 교육 관련 수업을, 소도시학교론, 농촌교육 등 소외지역 및 특수지역의 교육 관련 수업을, 고등학교장론과 같은 교육행정에 필요한 수업 등도 들었음이 주목된다. 그리고 한국 사회를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학, 심리학 등의 과목도 이수하였다.

V. 한국 귀국과 교육 활동

김마리아가 1926년 이른 봄 파크대학을 다니고 있을 당시, 한국에서 자신을 신문하였던 가와무라 검사가 미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러 갔다. 가와무라 검사는 마리아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전하였을 때 법적 시효가 끝나는 10년 이후, 즉 1931년 5월 이후가 되면 귀국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주었다.⁶²⁾ 김마리아는 법적시효가 끝나는 시기까지 미국에서의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조국의 독립과 한국인의 실력 양성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여러 대학

62) 김영삼, 『김마리아』, 193-196쪽.

에서 학위를 취득하며 학업을 부지런히 닦아 나갔다. 1931년 40세가 된 김마리아는 형기가 만료되고 법적 시효가 끝나는 5월이 되기 전부터 귀국 준비를 다각적으로 시작하였다. 1930년 캐나다 장로교 선교회는 원산 여자성경학교를 마르다윌슨여자신학교로 확대 개편하면서 교수진을 대폭 강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김마리아를 귀국 시켜 종교사업에 종사하도록 하려는 의지로 총독부에 조회하였다. 그러나 1931년 3월까지도 김마리아의 귀국문제는 국법위반문제에 걸려있어 결정 짓지 못하고 있었다.⁶³⁾

그러는 가운데 김마리아는 1931년 하기방학에 캐나다 토론토 세계기독교학생대회에 참가하였는데, 안식년으로 캐나다에 있었던 마르다윌슨여자신학교 교장 루이스 맥컬리(Louis H. McCully, 1864-1945)도 이 대회에 참가하였다.⁶⁴⁾ 이때 루이스는 김마리아가 언니(Elizabeth A. McCully)의 약혼자였던 맥켄지가 선교사역을 담당하였던 소래사람인 것을 알고 반가워하였으며, 김마리아의 역량을 알아보고 한국으로 돌아가 신학교에서 같이 일할 것을 권유했다. 캐나다 장로교 선교회는 조선총독부에게 김마리아 귀국을 타진하여, 귀국 후 마르다윌슨여자신학교 교수로서 성경만을 가르친다는 조건으로 부임을 허락받았다. 루이스는 김마리아를 ‘사랑하는 이에게서 얻은 열매’라고 하며 친동생과 같이 사랑하여 여비 일체를 담당하였으며, 김마리아는 1932년 7월 20일 한국에 도착하였다.⁶⁵⁾

김마리아는 1933년 봄부터 원산 마르다윌슨여자신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다. 마르다윌슨여자신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하였으나, 김마리아는 일거수일

63) 「애국부인단사건 김마리아 귀환?」, 『동아일보』, 1931. 3. 19; 이선이, 「선각자 김마리아에 대한 선교적 전망」, 225-229쪽

64) 임영희, 「루이스 맥컬리의 선교활동에 관한 연구」, 감리교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41쪽.

65) 「애국여성 약전 김마리아(7)」, 『조선일보』, 1957. 6. 20; 『조선일보』 기사에는 루이스 맥컬리가 맥켄지가 약혼자라고 하였으나, 맥켄지의 약혼녀는 루이스 맥컬리의 언니인 엘리자베스 맥컬리이다(김승태, 『내한선교사총람』, 한국기독교역사연구, 1994, 366-367쪽 참조).

투족 경찰의 감시를 받았다. 김마리아의 행동 반경은 경찰에 의해 지정되었고, 모든 강의도 경찰의 참관하에 이루어질 정도였다. 이러한 교육환경에서도 김마리아는 성경 과목 중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강의에 열정을 쏟았다. 구약성서의 ‘다니엘서’와 신약성서의 ‘요한계시록’은 둘 다 핍박받는 민족에게 새 희망을 주는 예언서로, 박해당하고 있는 한민족 구원의 성서라고 생각했다. 김마리아는 일제시기 민족의 자주권이 붕괴되어 가는 과정에서 인재 양성과 국가의 실권을 찾는 소망으로 요한계시록을 강의했다. 앞으로 우리 민족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독립국이 되어 타 민족으로부터 받는 부당한 핍박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 내는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빌어 학생들에게 독립의 희망을 전하였다. 학생들 사이에서 김마리아의 강의는 주제가 같을 때에도 매번 다시 연구하여 새로운 내용을 준비하는 명강의로 평가되었다.⁶⁶⁾

김마리아는 여자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교회 안에 존재하는 남녀 차별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였다. 김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 일남 일녀를 창조하시고 인권에 대한 차별이 없이 아담과 하와에게 만물을 주관하라고 명하셨으며 예수께서도 부부는 일신이라 가르치셨고 여자를 열등시하신 일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당시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교육의 실태를 점검하며 여성의 인권과 활동에 있어서 여성 자신의 책임성을 강조하였다. 과거의 여성교육은 가정에서 재봉과 음식을 만드는 것이었으나 교회가 들어온 뒤 학교 교육을 받게 되었고, 교회에 나가 전도의 의무도 지게 되면서 연보, 교역자 봉급의 공급, 직분 투표 가결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현실을 인지시켰다. 당시 교회를 보면 여성이 주일학교 교육, 자선사업, 전도 등에 주력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여성은 가정, 자녀교육, 교회,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⁶⁷⁾ 김마리아는 여성이 가정, 교

66) 배학복, 「나의 어머니, 김마리아 선생」, 『나라사랑』 30, 1978, 108쪽.

67) 김마리아, 「조선기독교여성운동」, 『종교시보』, 1934. 10.

회, 사회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교편을 잡고 있는 원산 마르다윌슨 여자신학교에서 기독교 신앙과 민족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마르다윌슨여자신학교에서 교사로서, 한편으로 여전도회 회장으로로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던 김마리아는 1941년 12월 7일 뇌일혈을 일으켜 졸도하였다.⁶⁸⁾ 김마리아는 1919년 체포되어 받은 고문으로 인해 생긴 고질병과 그 후유증으로 평생 고생하였으며, 1941년 12월 쓰러진 김마리아는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독립을 눈앞에 두고 결국 1944년 3월 13일 서거하였다.

VI. 결론

김마리아는 초지일관 독립론을 견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 독립운동의 대열에서 이탈한 적이 없고, 우리 민족과 국민의 잠재적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김마리아의 실력양성론은 김마리아 자신의 성장과 경험에 의해 발전되고 구체화되었다.

어린 김마리아가 ‘김판서 집’ 자녀로서 갖는 소래마을이라는 지역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은 전통 유학자 집안이면서도 새로운 문물인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하며 일제의 침략이 가시화되고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조국과 민족으로 확대되었다. 청소년기의 김마리아는 기독교 교육과 독립정신을 함양하는 서울 정신여학교의 분위기에서 수확하며, ‘김형제상회’에서 만난 독립투사들, 1907년 군대해산 시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한 부상병 등과의 경험을 통해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식을 강하게 하였다.

이러한 조국애는 일본 유학 과정에서, 교육을 통해 비로소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여성도 한국에 적합하고 유용하며 사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교

68) 『애국여성 약전 김마리아(8)』, 『조선일보』, 1957. 6. 27.

육을 받아야 한다는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확고하게 정립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신념은 직접 조국 독립운동에 참여하고자 2·8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귀국하는 적극적 실천으로 나타났다. 이 당시의 김마리아는 독립을 위해서는 직접 일본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이를 실천하였다. 그러나 19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애국부인회의 활동이 실패하고, 중국으로의 망명 후 상해 임시정부의 분열을 목격한 김마리아는 ‘실력양성’과 ‘단결’이 독립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미국 망명길에 올랐다.

김마리아의 실력양성론은 독립을 당장 이룰 수 없을지라도, 실력을 기르면서 일본에 끝까지 항거하면 독립할 수 있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였다. 김마리아는 미국에서 처음 학업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한국으로 돌아가 교육계에 헌신하고 이를 통해 조국의 독립과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하였고, 자신의 역량도 강화해 나갔다.

김마리아가 주장하는 실력양성론 중 여성교육에 대한 그의 생각은 각별하다. 김마리아가 여성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의견을 제시한 이유는 당시 한국 사회뿐 아니라 자신이 일본 유학시절, 미국 망명시절, 한국 귀국 후 남성이 중심이 되고 여성은 배제되거나 보조적인 역할만을 하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김마리아가 생각하는 여성교육의 목표는 여성이 자유로이 살도록 지음 받은 ‘사람’으로서 남자와 동등하게 시대적 사명의 현장으로 뛰어들어 자신의 삶, 조국의 독립과 발전의 주체로 서는 것이었다. 이는 여성이 보조적인 역할을 넘어 독립의 주체로 존재해야 함을 의미했다. 그러나 김마리아에게 여성교육은 여성해방, 여성권 획득이라는 여성만을 위한 노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김마리아에게 상위의 가치는 나라와 민족으로 설정되고, 궁극적인 가치는 ‘사람’으로 모아졌다. 실력양성을 통해 국민 개개인이 지도자가 되고 지도자를 선택하고 그의 활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단계까지 발전하였다.

김마리아의 교사로서의 실천에도 시기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피아여학교와 정신여학교 교사였던 20대 초반의 김마리아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울분을 토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학생들에게 독립의지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러던 김마리아는 40대 원산 마르다월슨여자신학교 교사 시절에는 감정적으로 성숙하고 여성의 교육과 독립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며 일제의 감시하에서도 성경을 통해 자신의 신념과 독립의 희망을 전달하며 미래 독립된 국가에서 활동할 인재를 양성하였다.

투고일: 2020.11.06. 심사완료일: 2020.11.30. 게재확정일: 2020.12.08.

주제어: 김마리아, 실력양성론, 교육론, 여성교육, 파크대학교, 콜럼비아대학교 사범대학원, 마르다월슨여자신학교

참고문헌

- 『대한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독립신문』, 『신한민보』
『한국YWCA』
- 김마리아, 「여성교육론」, 『여자계』 3, 1918. 9. 10.
- 김마리아, 「조선기독교여성운동」, 『종교시보』, 1934. 10.
- 김영순, 「나의 동지, 김마리아선생」, 『나라사랑』 30, 1978.
- 배학복, 「나의 어머니, 김마리아 선생」, 『나라사랑』 30, 1978.
- 송상도, 『기려수필』, 국사편찬위원회, 1971.
- 신의경, 「내가 아는 김마리아선생」, 『나라사랑』 30, 1978.
- Gilmore, G. W, *Korea from its Capital*, Philadelphia: The 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 1892.
- Kim, Maria C., “Initiative But Cooperative Leadership,” *The Korean Student Bulletin*, 1931. 3.
- 고춘섭, 『연동교회 애국지사 16인 열전』,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2009.
- 고춘섭, 『하늘과 땅 사이에서-순원 신의경 권사 전기』, 금영문화사, 2001.
- 김영삼, 『김마리아』, 한국신학연구소, 1983.
- 김옥선, 『빛과 소금의 삶, 김마리아 생애』, 주간시민, 1978.
- 김필례, 「김마리아」, 『중학 국어 III-II』,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66.
- 김필례, 「이상을 향하여 다름질렸던 격동(激動)의 시대」, 『희상의 학창시절 (女流21人集)』, 신서출판사, 1973.
- 박용옥, 『김마리아-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하였다』, 흥성사, 2003.
- 박화성, 『새벽에 외치다: 송산 황신덕 선생의 사상과 생활』, 휘문출판사, 1960.
- 양현혜, 「김마리아의 불꽃같았던 삶을 기념하며」, 『통일의 길, 한국 여성독

- 립운동에서 찾다』, 정언, 2015.
- 윤병석·윤경로 엮음, 『안창호 일대기』, 역민사, 1985.
- 이은상, 「곽낙원과 김마리아」, 『중학 국어 3-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4.
- 정신백년사출판위원회, 『정신100년사(상)』, 정신여자중고등학교, 1989.
- 김경일, 「식민지 시기 신여성의 미국 체험과 문화 수용」, 『한국문화연구』 11, 2006.
- 김광자, 『일제강점기 기독교여성지도력 유형 비교 연구: 김활란과 김마리아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 김주용, 「의사 김필순의 생애와 독립운동」, 『연세의사학』 21-1, 2018.
- 김혜경, 「김마리아의 민족주의 교육사상연구」, 『논문집』 1, 1981.
- 김호일, 「기독교 교육가 김마리아 연구」, 『인문학연구』 36, 2003.
- 노영희, 「김마리아, 민족혼에 대한 자각과 여성해방 운동」, 『한림일본학』 6, 2001.
- 유준기, 「김마리아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보훈논총』 8-1, 2009.
- 이선용, 「한국 초기 개신교와 여성교육: 김활란과 김마리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이선이, 「선각자 김마리아에 대한 선교적 전망」, 『선교신학』 44, 2016.
- 이영분, 「근대 한국 미션스쿨의 여성교육과 한국 여성의 삶과 변화: 초기 이화학당과 정신여학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임영희, 「루이스 맥켈리의 선교활동에 관한 연구」, 감리교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정경환, 「김마리아의 구국투쟁과 독립정신에 관한 연구」, 『민족사상』 7-4, 2013.

<Abstract>

Kim Maria(1892-1944)'s View on Education

— Focusing on the Formation and Concreteization of the Theory for
Fostering Capacity —

Lee, Bang-Weon*

Kim Maria was a “female Korean independence activist” who devoted her whole life for the independence of Korea. She said that “I married with the independence of Korea” with confidence. To understand activities of Kim Maria who sought the ways for independence and put into practice in her whole life,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races of forming, changing and developing her theory for fostering capacity as the way for national salvation in her life.

When she was young, Kim Maria grew up in the family who felt responsible for local community and in open home environment accepting Christianity. She expanded her responsibility to country and people as Japan invaded was realized. In her teens, she studied at Chungshin Girls' School which cultivated the Christian education and the spirit of independence she met fighters for independence at “Kim Brothers Store” which was managed by her uncles, Kim Yuno and Kim Pilsoon. She also cured soldiers who were wounded in the protest against the dissolution of Korean Army in 1907 in Severance Hospital. Through these experiences, she decided to devote her life for Korean

* Ewha Institute of History, Researcher

The Korean Research Institution of Social Welfare History and Culture, Director.

independence.

During studying in Japan, she set up her resolute idea on the necessity of the education for women. She thought that education was essential to become “human” and women must be educated to be appropriate and helpful in Korea and committed to society. For Korean independence, she returned to Korea with the statement of the February 8th Independence Declaration and contributed to plan the March 1st Movement. However, she witnessed failures of the March 1st Movement and Korean Patriotic Women's Society in Korea and the division of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 Shanghai. She realized that fostering capacity could be base for independence and went study abroad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en she started her study in the U.S., she already decided to devote herself to Korean education and contribute to the independence and development of Korea. In the U.S., She strengthened her capacity by studying in Park University, Chicago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 Columbia University and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Through these studying and other experiences in the U.S., she developed her theory for fostering capacity to the stage that a individual citizen must effort to have his own leadership, choose leader and cooperate for the success of activities of that leader. She thought that a individual citizen must be the pivot of society.

In her theory of fostering capacity, she had particular attention to the education for women. She had consciousness about the situation that a man was in center and a woman was excluded or in only auxiliary role. She thought that a woman was designated to be a “human” who can live freely. Her purpose of education for women was that a woman

must go into the scene of missions of times equally with a man and stand as the independent subject of her own life and of the independence and development of her homeland. It meant that a woman must be the subject of independence beyond the auxiliary role.

Kim Maria's theory for fostering capacity was formed, changed and developed by her growth and having various experiences. The purpose of fostering capacity was not limited to the independence and expanded to the process of national development after independence. Her emphasis on education for women was not for only the liberation of women. She thought that men and women together must participate in the independence and development of nation. She did not leave her theory as only theory. After returning to Korea, she practiced her theory in teaching in Martha Wilson Seminary for Women and cultivated the spirit of independence.

Key Words: Kim Maria, Theory for Fostering Capacity, View on Education, Education for Women, Par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 Columbia University, Martha Wilson Seminary for Women